

군산 개최 '바다의 날 행사' 성료

14년 만에 대통령 참석 '주목'... 전북현안 해결 기대 '해양수산 4차산업전·바다축제의 장' 큰 호응 얻어

지난 5월 31일 군산 신시광장에서 개최된 해양관련 최대 국가 행사인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행사'가 지난 4일까지의 다채로운 부대행사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했다. 해양수산부와 군산시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행사는 '해양수산 4차산업전'과 '바다축제의 장'이 마련되어 역대 최고의 행사로 평가받았으며, 14년 만에 대통령령이 직접 참석하는 가운데 진행되어 큰 주목을 받았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행사장에 전시된 해양 4차산업의 대표격인 '위그선'에 직접 탑승하는 등 체험행사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전북현안과 해양수산을 직접 챙기는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는 기념사를 통해 전북지역에 산적한 현안문제가 잘 풀릴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시에서는 신시도에 위치한 신치항 일원에 바다의 날을 기념하는 바다축제장을 조성하고 ▲플라이보트 ▲세일요트 ▲동력보트 ▲카약 등 다양한 무료해양 레저체험과 ▲선박모형 만들기 ▲해양안전 및 환경체험교실 등을 운영하여 4,000여명의 방문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으며, 축제현장에서는 군산·부안수협 주관으로 운영된 수산물 홍보관매장과 도내 마을기업 10개소의 농수특산물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지역특산품을 홍보했으며, 인근 신시도와 이마도 어촌계에서 직영한 수산물먹거리 장터도 진행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문동신 시장은 "군산이 직면한 현안 문제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번 행사의 슬로건처럼 함께 또 다시 뛰어 다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서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전하며, "새만금을 중심으로 환



군산시는 신치항 일원에 바다의 날을 기념하는 바다축제장을 조성하고 플라이보트·세일요트·동력보트·카약 등 다양한 무료해양 레저체험과 선박모형 만들기·해양안전 및 환경체험교실 등을 운영해 방문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황해권 경제 거점도시로 성장을 도모하고 21세기 신 해양수산산업의 거점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군산=장 현 기자

'중소기업 차별화 성장 전략' 특강

나중호 한국대강소기업상생협회 대표, 오늘 원광대서

나중호(사) 한국대강소기업상생협회 대표(사진)가 8일 저녁 원광대 최고정책관리자과정에서 '중소기업 차별화 성장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펼친다.



특히 나 대표는 경영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전략적 제휴나 기업 간 상생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인터넷, 홈쇼핑, 해외시장 등의 판매 채널을 특화하면서 고객 중심, 차별화 등 기본에 충실한 마케팅을 전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 불황일수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어느 한 분야에 확실한 경쟁력을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하고, 한정된 내수시장보다는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적극 시도할 것을 권유하는 등 '중소기업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 대표는 국내의 기업들의 모범 사례를 통해 6단계 핵심요소를 30가지 실천전략으로 나눠 설명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한마음회, 군산경로식당 봉사

군산시 '한마음회'는 가족청소년과 직원들과 함께 7일 군산경로식당에서 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관내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하고 맛있게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한마음회' 회원들과 가족청소년과 직원들이 마음을 모아 추진하게 되었다.

한마음회 회원과 직원들은 준비해간 과일, 음료와 함께 400여명의 어르신들께 점심을 제공했으며, 음식재료 준비부터 배식과 설거지 등 각자 맡은 자리에서 나눔을 실천했다. /군산=김희관 기자

순수분, 국가식품클러스터 공장 기공식 가져

고용인원 100명·매출액 300억 생산시설 갖춰 '기능성숙' 생산... 연말 가동

순수분(주)가 7일 오전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 중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식품전문산업단지에서 공장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에는 순수분의 김철호 회장, 최복이 부회장, 감용태 대표이사 등 기업대표와 정현을 익산시장, 농림축산식품부 안재욱 과장, 전라북도 조호일 과장을 비롯한 관계기관 대표가 참석했다.

2014년 설립된 순수분은 '본죽'과 '본 도시락', '본 설렁탕' 등 국내 대표 한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본 아이에프(주)의 자회사로 모기

업의 식품사업부에서 신선했던 이유식·실버식 등 특수영양식 제조·판매 회사다.

이번 투자로 순수분은 영유아,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능성숙'의 생산을 위해 약 1만여평(32,849㎡)의 부지에 고용인원 100명, 매출액 300억의 생산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올 연말에 본격 가동에 들어가 향후 중국, 대만 등 해외수출의 생산기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순수분' 김철호 회장은 "최적의 여건을 갖춘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결정에 도움을 주신 익산시와 관계기관

에 감사드린다"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업지원 R&D사업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글로벌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영 부시장은 "지역 농산물을 대규모 사용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순수분(주)의 착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한다"며 "세계적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식품기업들의 입주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글로벌 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 보이스포싱 예방 홍보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는 관내에서 보이스포싱이 기승을 부리자 이에 대한 예방 일환으로 체계적인 홍보전략을 추진, 관내 32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주요 보이스포싱 발생 사례와 예방 수칙이 담긴 전단지들을 전달하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특히 관내 모든 은행을 방문해 은행 직원들에게 현금 500만원 이상 인출하는 내방객 중 보이스포싱이 우려되는 경우 무조건 신고하라는 홍보를 실시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사회적경제 일자리 1만개 창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운영 계획 보고회... 2028년까지 목표

정현을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이 최근 익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열린 '익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운영 계획 보고회'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올바른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단·중장기 사업 방향과 공익성 향상 방안을 모색했

다.

이날 보고회를 통해 익산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2028년까지 △사회적기업 150개사 육성 △사회적경제 일자리 1만개 창출 △사회

적경제조직 연평균 10% 성장 △사회적경제 GDP 점유율 5%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사회적경제에 관한 인식 제고 및 공공조달 시스템 등의 제도적 기반 구축, 보석·석공예 등을 활용한 지역 특화형 사회적 비즈니스모델 발굴, 사회적경제 조직간 자원연계 활성화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등 성장 동력이 될 기반사업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야외수영장 28일 조기 개장

어린이놀이시설 11일까지 운영

예년보다 빠르게 찾아온 무더위에 군산시민들의 더위를 시원하게 식혀 줄 군산야외수영장이 개장을 앞당기며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인 손님맞이로 들어간다.

군산시는 지난달 불철 동안 소용동 야외수영장에서 만날 수 있었던 어린이놀이시설의 운영기간을 단축하고 본래 취지의 야외수영장을 조기 개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당초 24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어린이놀이시설의 운영기간이 11일까지로 단축되었으며, 7월 초로 예정되었던 야외수영장의 개장을 오는 28일로 앞당겨 시민들을 만나기 위한 막바지 준비에 들어간다.

준비기간 동안 사에서는 중앙광장의 그늘막 설치를 개장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야외수영장 주위에 보다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장 현 기자

군산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12일~30일 위생등급 자율선택

군산시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많은 음식점에서 신청·지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대상은 평가를 희망하는 일반음식점 모든 영업자이며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영업자 본인이 식약처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우편·방문을 통해 희망하는 위생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에 자율 선택해 신청하고 평가를 받으면 된다.

신청 업소는 식약처나 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에서 준비한 음식점 위생상태 평가항목 기준에 따라 7월부터 11월까지 평가절차를 진행하여 등급별 항목 취득점수가 85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신청한 위생등급을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위생등급 지정 업소에 대하여는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작 배부 ▲음식점 위생시설 개선 자금인 식품진흥기금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www.gusan.go.kr)를 참고하거나 군산신청 식품위생과(☎ 454-3423, 3427)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장 현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역**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